

2018년 12월 05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로 3%대 급락 미-중 무역분쟁 실무 협상 불확실성도 영향

### 미 일드커브 축소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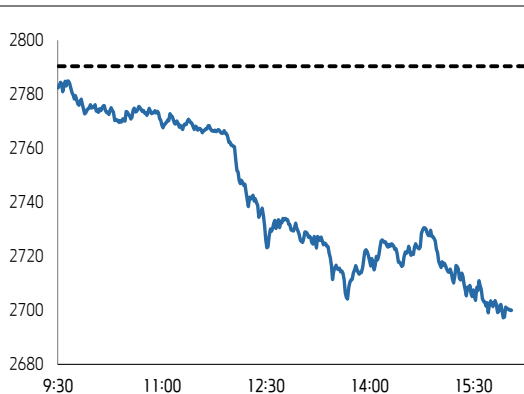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를 비롯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하락 출발. 이런 가운데 오후 들어 미국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자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낙폭 확대. 특히 JP 모건(-4.46%)을 비롯한 금융주가 하락 주도(다우 -3.10%, 나스닥 -3.80%, S&P500 -3.24%, 러셀 2000 -4.40%)

미국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 일드커브(yield curve)가 금리역전 상태(인버전 inversion)에 근접. 전일(3 일) 중도 매파 성향의 랜들 웰스 연준이사가 “중립 금리에 근접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정확하다”라고 언급하자 3 년물과 5 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었으며 10 년물도 3.0%를 하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점도 역전 현상에 영향을 줌

3 년물과 5 년물의 금리차이는 시장에서 덜 주목 받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게 별로 없음. 그러나 마지막으로 3 년물과 5 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때가 2007 년이었고 곧 이어 중요하게 참고하는 2 년물과 10 년물의 금리도 역전.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는 점에 시장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물론 역전 발생 시점과 경기 하강 시점 사이에는 6 개월에서 최대 2 년까지의 간격이 있어 그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음.

한편, 오늘은 중도성향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경제는 강하지만 위험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 했고, 물가 급등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언급하자 국채금리 하락. 이는 지난 11 월 19 일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다”라는 주장보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후 2 년물과 10 년물 금리차는 10bp 초반까지 축소되자 오후 들어 미 증시는 하락폭을 확대 했음. 시장 참여자들은 5 일(수) 베이지북, 7 일(금) 고용보고서 결과 주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동률(%)	지수	지수	변동률(%)
지수	Close	D-1	지수	Close	D-1
KOSPI	2,114.35	-0.82	홍콩恒生	27,260.44	+0.29
KOSDAQ	708.63	-0.12	영국	7,022.76	-0.56
DOW	25,027.07	-3.10	독일	11,335.32	-1.14
NASDAQ	7,158.43	-3.80	프랑스	5,012.66	-0.82
S&P 500	2,700.06	-3.24	스페인	9,061.70	-1.28
상하이종합	2,665.96	+0.42	그리스	656.96	-0.42
일본	22,036.05	-2.39	이탈리아	19,353.43	-1.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산업재, 반도체 업종 급락

JP모건(-4.46%), BOA(-5.43%), 씨티그룹(-4.45%) 등 금융주는 미국 일드커브가 축소되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보잉(-4.85%)과 캐터필라(-6.93%), 디어(-6.55%) 등 기계업종, 3M(-3.14%) 등 산업재는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관련 실무협상에 대한 부담이 부각되자 하락했다. 마이크론(-7.87%), 인텔(-4.75%) 등 반도체 업종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부각과 애플 아이폰 매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했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8% 하락했다.

애플(-4.40%)은 HSBC가 아이폰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BUY→HOLD) 하자 하락했다. 시러스로직(-1.86%)도 부진한 전망을 발표한 점도 애플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 여파로 큐로브(-5.30%), 스카이웍(-3.68%), 브로드컴(-4.14%)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하락했다. 한편, 아마존(-5.87%)은 미 행정부가 우체국 택배 서비스에 대한 개편을 촉구 하는 보고서를 발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UPS(-7.37%), 페덱스(-6.31%)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48%	대형 가치주 ETF	-2.82%
에너지섹터 ETF	-4.65%	중형 가치주 ETF	-2.87%
소매업체 ETF	-3.68%	소형 가치주 ETF	-3.96%
금융섹터 ETF	-4.35%	배당주 ETF	-1.98%
기술섹터 ETF	-3.79%	변동성 ETF	+13.17%
소셜 미디어업체 ETF	-2.86%	대형 성장주 ETF	-3.58%
인터넷업체 ETF	-4.16%	중형 성장주 ETF	-3.73%
리츠업체 ETF	-1.32%	소형 성장주 ETF	-4.51%
주택건설업체 ETF	-4.55%	신흥국 고배당 ETF	-1.77%
바이오섹터 ETF	-3.30%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0%
헬스케어 ETF	-2.23%	하이일드 ETF	-0.52%
곡물 ETF	-0.46%	물가연동채 ETF	+0.30%
반도체 ETF	-4.92%	Long/short ETF	+1.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2.93	-2.93%	+1.36%	-5.13%
소재	336.38	-3.08%	+1.05%	-0.74%
산업재	588.19	-4.35%	+0.09%	-1.82%
경기소비재	838.35	-3.91%	+1.65%	-1.66%
필수소비재	566.51	-1.63%	+0.13%	-1.43%
헬스케어	1,076.29	-2.30%	+1.93%	+3.30%
금융	429.42	-4.40%	-2.37%	-3.29%
IT	1,168.19	-3.86%	+1.65%	-3.04%
커뮤니케이션	145.26	-3.15%	-0.23%	-2.76%
유틸리티	283.61	+0.15%	+2.31%	+3.77%
부동산	207.00	-1.26%	+1.04%	+3.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증시 변화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2.47% MSCI 신흥 지수는 2.10% 하락 했다. 야간 선물은 외국인이 순매수(+94 계약) 했으나 3.35pt 하락한 270.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0.4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실무협상 불확실성과 국채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과 미국 국채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는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증시 하락폭에 비해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미 증시 하락 요인인 경기 침체 우려로 한 때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장 후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장중에 일부 완화된 점은 한국 증시에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도 주목된다. 지난 3 일 리커창 총리가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실시해 내수 진작 효과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 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전월(50.8) 보다 둔화된 50.7 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를 비롯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 점을 감안 중국 증시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중국 증시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경제지표 둔화

11 월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69.8) 보다 둔화된 67.8 로 하락 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현재 매출 지수(72.2→65.6), 매출 기대 지수(80.6→78.1) 등이 하락을 야기시켰다.

미국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하며 지난번 발표치(yoy +7.9%)를 하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엔화 강세 지속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지자 하락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OPEC 의 감산 기대감이 높아지며 반등에 성공 했다.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는 물론 캐나다의 앨버타주 등이 감산을 시사하고 있어 6 일(목)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달러화는 엔화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그러나 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에는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되자 전일에 이어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 했다. 파운드화는 11 일 있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부결될 경우 관련 통제권이 영국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달러 대비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야당이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 법률검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요약본만 공개한 것은 '의회 모독' 이라는 표결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 또한 달러 대비 약세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뉴욕연은 총재가 “경제는 강하지만 위험 요인도 나타나기 시작 했으며, 물가 급등 요인은 많지 않다” 라고 주장한 이후 하락했다. 더불어 장기물과 단기물의 일드커브가 축소되자 주식시장이 급락 했으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전일 3 년물과 5 년물 일드커브가 인버전 되는데 이어 오늘은 2 년물과 5 년물도 인버전 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9%, 철근도 1.9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25	+0.57	+3.28	Dollar Index	96.969	-0.07	-0.41
브렌트유	62.08	+0.63	+2.78	EUR/USD	1.1342	-0.11	+0.47
금	1,246.60	+0.56	+2.19	USD/JPY	112.75	-0.80	-0.91
은	14.640	+0.97	+2.95	GBP/USD	1.2716	-0.07	-0.24
알루미늄	1,974.00	0.00	+2.25	USD/CHF	0.9976	+0.01	-0.12
전기동	6,209.00	-1.37	+1.43	AUD/USD	0.7341	-0.23	+1.61
아연	2,589.00	+0.23	+6.32	USD/CAD	1.3251	+0.41	-0.32
옥수수	384.75	+0.72	+4.41	USD/BRL	3.8493	+0.13	-0.70
밀	522.50	+0.24	+3.16	USD/CNH	6.851	-0.37	-1.45
대두	911.75	+0.66	+4.14	USD/KRW	1105.30	-0.49	-2.13
커피	106.90	-0.83	-5.65	USD/KRW NDF1M	1110.40	+0.22	-1.76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10	-5.97	-14.72	스페인	1.483	-0.70	-6.80
한국	2.092	-3.50	-5.90	포르투갈	1.806	+0.60	-7.10
일본	0.074	-1.20	-1.80	그리스	4.217	+3.10	-13.00
독일	0.263	-4.30	-8.70	이탈리아	3.153	+1.00	-13.40